

## 심장재단 2만번째 새생명 탄생

박지원군이 주인공... 서울대병원서 수술

올해로 창립 20주년이 되는 한국심장재단에서 2만 번째 새 생명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서울대병원에서 「팔로씨 4징」 수술을 받은 박지원군(남·2003년 10월 2일 출생).



제주도에 살고 있는 지원이는 생후 1개월 당시 예방접종을 하다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별다른 증상 없이 자랐으나 하루하루 지

날수록 숨소리가 이상하고 손발이 파랗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 제주대병원을 방문하였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

사를 받은 결과 팔로씨 4징으로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가 차량으로 방양제를 판매하며 월 70만원의 수입과 약 8만원의 월세 방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지원이네 가족은 수술비 마련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카드부채 1,4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더욱 막막해 하던 차에 지원이 어머니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심장재단과 만나게 됐다.

지원이는 지난 9일 서울대병원에 입원, 11일 소아흉부외과 김용진 교수의 집도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한국심장재단은 2만 번째 새생명 탄생의 기쁨과 함께 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26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심장재단 02-414-5321~3).